



X염색체 때문에

오재호/극작가 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

“애미가 멍청하다보니 아이들도 모조리 대학 시험에 낙방합니다. 저는 더 이상 이 여자하고는 못삽니다.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산다는 말이 우리 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.”

60대 남편의 주장입니다. 배우자가 “멍청하다”는 이유로 이혼한 부부는 단 한 쌍도 없습니다. 그런데도 이혼에 성공(?)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.

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아들이 머리가 나쁘면 그 어머니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. 이 말은 바꾸어 음미해보면 어머니는 아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또 전국 남자 대학생 4,530명에게 “당신의 인생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?”라는 질문을 했는데 <어머니>라고 응답한 대학생이 무려 4,397명이 넘었습니다. 거의 절대적인 반응입니다. 이것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놓여 있는 생물학적인 함수관계를 노골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사람에게는 지능을 전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. 현대 그 지능 유전자는 여성의 X염색체 속에 있습니다. 물론 남성도 X염색체를 지니고 있습니다. 다만 남성은 단 한 개뿐인 지능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염색체상의 변이현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만일 영향을 받았을 때는 유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. 제 구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성의 경우 첫 번째 X염색체가 손상을 입었다고 해도 두 번째



X염색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런 경우, 딸을 잉태했다면 아들보다 지능이 두 배로 좋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셈입니다. 아무튼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물려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는 점에서 어머니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.

문제는 아들 3명이 모두 대학시험에 낙방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어머니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이혼의 빌미가 된 것은 어머니의 상습적인 가출이었습니다. 남편이 특하면 “애미가 멍청해서”라고 비난하니까 정말로 “나는 바보다”라는 지적 콤플렉스에 빠진 나머지 한사코 밖으로만 나돌게 된 것입니다. 남편의 사업이 잘못된 것도 자신의 멍청함 때문이며 아이들이 대학시험에 낙방한 것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. 심지어 여름 장마철 비가 몹시 와도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. 참으로 어이없는 비극입니다. 이래서 비난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칼날과도 같다고 했나 봅니다. 어떤 형태의 지적이나 비난도 합리화 될 수는 없습니다. 내가 상대 배우자를 지적하고 비난했을 때는 자신의 잘못 세가지 이상을 숨기려는 전이현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. 지금 손가락으로 상대를 지적해 보십시오. 하나는 상대를 향하고 있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. 이것이 비난의 근본 원리이기도 합니다. 부부사이에는 아무리 사소한 비난일지라도 배우자의 가슴에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를 남깁니다. **PPFK**